대중문화의 "힐링", 그 명과 암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작년부터 대중문화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힐링(healing)' 열풍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힐링드라마", "힐링무비", "힐링뮤직", "힐링서적", "힐링푸드", "힐링여행", "힐링 비즈니스" 등등. 이제 힐링은 뒤에 무슨 말이든 붙일 수 있는 접두어처럼 쓰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SBS의 〈힐링캠프〉는 힐링이라는 말을 널리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여러 게스트를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신변잡기식 잡담을 늘어놓는 토크쇼가 주를 이룰 때, 캠핑하듯 자연에 앉아 한 인간의 진솔한 삶을 눈물과 웃음으로 풀어내던 신선한 포맷은 이제 토크 프로그램의 정석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비소설로는 이례적으로 200만 부 이상 팔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 혜민 스님과 관련된 뜨거운 반응에도 언제나 힐링이 따라붙는다. 그분의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글에는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힐링'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힐링(healing)은 '치료' 또는 '치유'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 그 의미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사실 다른 어떤 개념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기에 굳이 '힐링'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여 그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치료나 치유로는 채 설명되지 않는, 힐링이라고 해야만 전달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왜 지금 우리들은 대중문화가 만들어내는 힐링이라는 말에 이토록 뜨겁게 반응하는 걸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힐링은 상처, 부상,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말한다. 그런데 대중들이 이야기하는 힐링은 물리적인 상처나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말하는 건 아닌 듯하다. 그보다는 마음의 상처, 감정적, 정서적인 아픔으로부터의 나음을 일컫는 말로 더 자주 사용된다.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또 다른 개념인 "위로"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90년대부터 "치유문화(therapeutic culture)"라 하여 힐링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이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질서가 가져온 삶의 각박함과 피로감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치유문화의 붐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오프라쇼〉는 미국 대중문화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오프라는 힘겨운 삶에 지친 대중들의 절박함을 잘 간파해냈을 뿐 아니라 위로받고 치유받기 원하는 심리적 욕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킨 인물이었다. 그의 토크쇼에는 언제나 위로와 다독임, 용기,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가득했다. 이러한 오프라 식 힐링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미디어 제국의 주인으로 대접받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힐링문화는 많은 이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질병의 근본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없이 모든 문제를 개인적, 심리적인 것, 즉 그들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힘겹게 만드는 사회구조와 질서에 대한 문제 제기 대신, 마음의 위로와 위안만을 제공하는 "값싼 힐링"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힐링문화는 어떨까? 우리 대중문화에서도 여지없이 동일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힐링을 표방하는 대중문화 상품들 대부분이 개인의 감정을 대상으로 공감과 위로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공감과 위로는 꽤 힘 있어 보이지만 금방 허탈해지고, 또 다른 위로를 찾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우리 힐링문화의 전부는 아니다. 힐링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도 분명히 있다.

먼저 힐링문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 매우 지쳐 있으며 위로와 치유가 필요함을 알려 준다. 그리하여 현재 삶의 방식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 성과 위주의 경쟁주의 사회, 치열한 서열 다툼, 남을 딛고 일어나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회질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을, 또 그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을 강요 받아왔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힐링문화는 대중들에게 대안적 삶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즉 힘겨운 현재와는 다른 새로운 원리와 질서를 꿈꾸게 된다. 지금까지 외면했던 관용, 평등, 다양성, 공동체성 등의 가치들이 주도하는 다른 방식의 삶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힐링문화의 가장 큰 성과는 단순히 물리적, 심리적 치료를 넘어 전인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는 데 있다. 온전한 힐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너무도 쉽게 무시해 왔던 종교적, 영적 필요를 인정해야 한다. 물질적 필요와 성취만을 앞세워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던 데서 벗어나 영적 필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노력이 사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세속사회가 힐링을 말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갈수록 종교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시대에 대중문화에서나마 힐링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른다. 제도권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낮아져 가는 이 시대에 대중문화 속 힐링은 이제 우리 사회가 물질적, 세속적 가치에 절망하고 있고, 종교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와 의미에 목말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보여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사회를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정한 힐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되새기자.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힐링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다.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유경상 지음 | 4·6배판 | 260면 | 전면칼라판 | 15,000원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물하세요!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 전문가가 만든 검증된 교재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영·공!"(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해요) 세 글자를 외치면서 아이도 엄마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_김선희 엄마교사(평내교회 어린이세계관학교 참석자)

■이 책이나 주말 세계관학교에 관심있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자 직강 및 세미나도 가능합니다. 02)745-7231

어린이·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교재 드디어 출간!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는 도서출판 CUP
www.cupbooks.com 02)745-7231